

광주·전남 아기 출생률 계속 커진다

통계청 '2025년 4월 인구동향'

출생아수 광주 508명·전남 721명
전년 동월比 각 10.0%·10.4% ↑
전국 출생아 증가율 34년만 최대

광주·전남 지역의 4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월 기준 전국 출생아 증가율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62명)과 비교하면 46명(1.0%), 전남은 721명으로 같은 기간(653명)에 비교해 68명(10.4%)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 4월 광주·전남 사망자 수는 2천299명(광주 750명·전남 1천549명)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천64명(광주 242명·전남 822명)이 자연 감소했다.

광주·전남의 결혼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모두 늘었다.

광주의 4월 혼인 건수는 552건으로 작년 동월 484건보다 23.2% 크게 늘었고 전남 역시 같은 기간 597건에서 637건으로 6.7%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올해 1~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지난해 1~4월까지 출생아 수 합계는 2천61명으로 올해(2천166명)와 비교하면 105명, 전남도 같은 기간 2천748명에서 2천952명으로 204명 늘어 두 지역 모두 증가세를 보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의 4월 출산율도 혼인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년 만에 2만명대를 회복했으며 증가율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8명(6.7%) 증가했다.

2022년 4월 2만1천164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섰으며 증가율도 1991년(8.7%) 이후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 또한 8만5천739명으로 작년보다 7.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으며 4월 합계 출산율도 0.79로 작년보다 0.06명 늘었다.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 증가 이유로 혼인과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천785명으로 작년 같은 달 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밀 đuổi며 4월 인구는 8천68명 자연 감소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천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고 작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안태호 기자

광주은행, 지역 주력산업 중기 금융지원 확대

市·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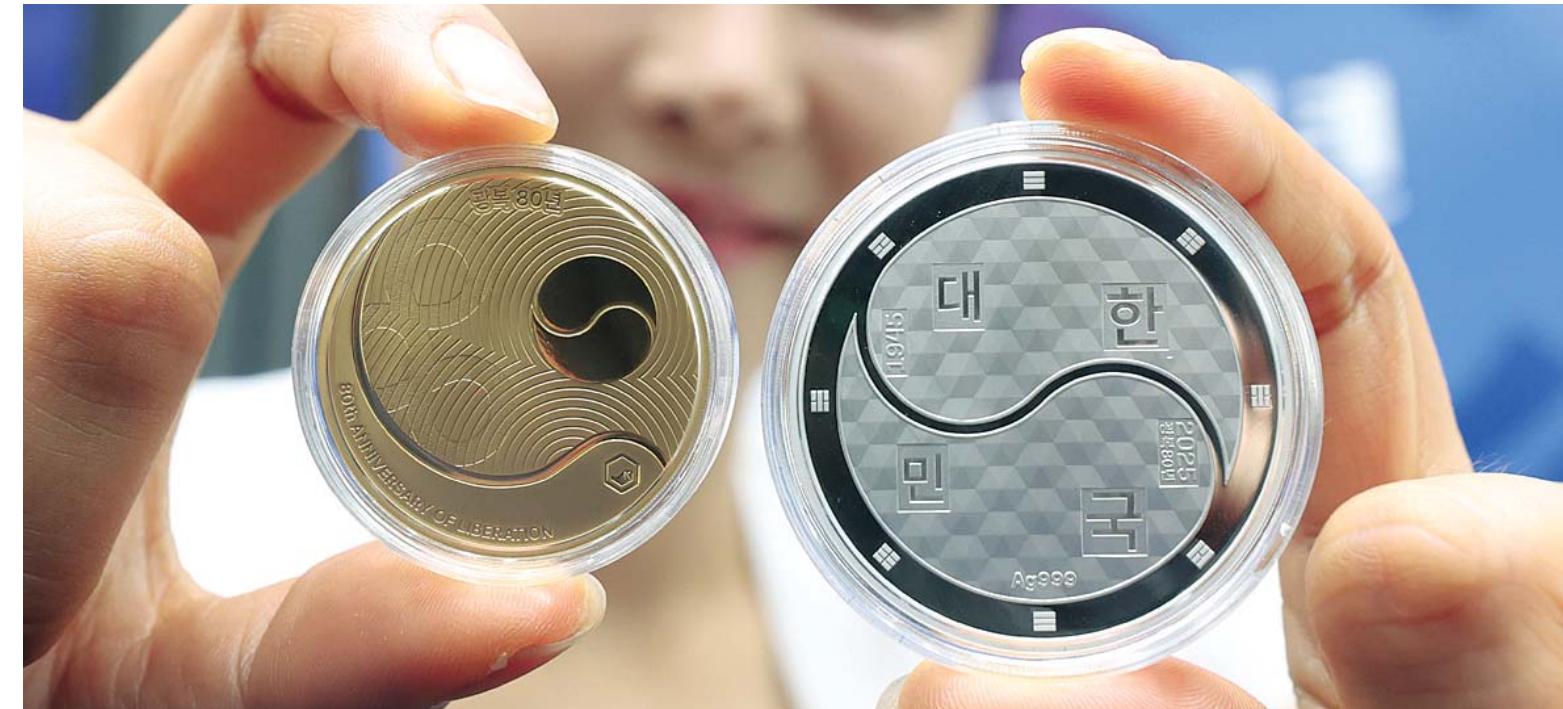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등 목적

광주은행은 25일 광주시, 기술보증기금과 광주 지역 내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재·부품·장비 업종 등 광주시 주력산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에 금융비용 부

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1억원을 특별출연해 대상 기업에 1년간 연 0.5%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최대 200억 원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 광주시는 2년간 연 20%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지역 소재 기업이 보다 나은 금융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은솔 기자



광복 80주년 기념 메달 예약판매 한국조폐공사가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서울사무소 환폐제품 판매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메달'을 공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메달은 오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선착순 예약판매한다. /연합뉴스

송호성 기아 사장, 오토카 어워즈 '최고 영예의 상' 수상

'이시고니스 트로피' 수상

글로벌 車 산업 성공적 변화 기여

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기아는 송호성 사장이 25일(현지시각)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Autocar)가 주관하는 '2025 오토카 어워즈(2025 Autocar Awards)'에서 '이시고니스 트로피(Issigonis Trophy)'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오토카는 지난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한 매체다.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중 최고 영예의 상으로 전설적 자동차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 이시고니스(Alec Issigonis)'의 이름을 차용해 명명됐다. 역대 주요 수상자는 2014년 론 데니스(Ron Dennis) 맥라렌 회장을 비롯해 2020년 하칸 사무엘손(Hakan Samuelsson)



볼보 CEO, 2021년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2024년 루카 데 메오(Luca de Meo) 르노 그룹 CEO 등 세계 자동차 업계를 이끈 인물들이다.

송호성 사장은 취임 전 글로벌 운영 책임자, 기아 유럽 법인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오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과 해외 사업 운영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2020년 기아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중장기 '플랜 S' 전략을 통해 기아를 전동화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리더십 아래 기아는 2024년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한 EV9과 2025년 세계 올해의 차 EV3 등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출시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오토카 편집장 마크 티쇼는 "송호성 사장에 게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 우리는 송 사장이 기아를 이끌어온 방식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그가 이룬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그는 훌륭한 디자인과 브랜드 개선을 주도했으며 전동화라는 큰 도전에 맞서 업계 최고 수준의 뛰어나고 매력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송호성 사장은 "오토카 이시고니스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이 상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아 팀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안태호 기자

농협은행 전남본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7억 출연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5일 전남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17억3천400만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재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남 도내 소상공인의 여신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2007년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전남신용보증

재단과 연계해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전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의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